

## 한방의료기관 한약제제 구비 현황 조사 연구

박요한, 황대선,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연구센터

### ABSTRACT

## The Analysis of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Equipp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Yo-Han Bak, Dae-Sun Huang, Hyeun-Kyoo Shin  
Herbal Medicine EBM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 : There is a growing need to expand or adjust insurance coverage of herbal prescription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expansions or adjustments of 56 herbal prescription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 : We surveyed lists of 56 insurance-covered herbal prescriptions, non-covered company-produced herbal medicines and self-prepared herbal medicines in 531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by mail from 6/1/2008 to 12/9/2008.

Result : Among the 56 Prescriptions, *Ojeok-san* was stocked in 66.7% of clinics (1st), *Samso-eum* ranked 2nd, *Socheongnyong-tang* ranked 3rd, *Gumiganghwal-tang* was 4th, *Hyangsapyeongwi-san* ranked 5th. Among the non-covered company-produced herbal medicines, *Danggwisu-san* ranked 1st, *Gwakyangjeonggi-san* ranked 2nd, *Oryeong-san* was 3rd, *Bangpungdongseong-san* was 4th,

- 
- 교신저자 : 신현규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번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센터
  - Tel : 042-868-9464 Fax : 042-864-2120 Email : hkshin@kiom.re.kr
  - 접수 : 2010/ 04/ 09 1차 수정 : 2010/ 06/ 07 2차 수정 : 2010/ 06/ 13 채택 : 2010/ 06/ 23

*Maengmundong-tang* ranked 5th. Among the self-prepared herbal medicines, *Gongjin-dan* ranked 1st, *Soche-hwan* was 2nd, *Gyejibongnyeong-hwan* was 3rd, *Yeongsin-hwan* was 4th, *Palmi-hwan* ranked 5th.

Conclusions : It is reasonable to select frequently used company-produced or self-prepared herbal prescriptions in this stock rate survey for improv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Key word : herbal preparati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 I. 서 론

1987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한의학 분야로 침, 구, 부항, 26종 혼합 한약제제, 68종의 단미 엑스산제를 급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현재 한약분야로는 26종을 56종 한약제제로 급여 확대하고 있는 것이 변화된 상황이다. 이들 56개 혼합 엑스산제 처방에 대한 약제급여가 지정된 것이 1990년이므로, 20년이 지난 오늘날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투여 시 필요로 하는 급여 처방 범위와는 간극이 커져있다<sup>1)</sup>. 따라서 매년 건강보험통계<sup>2-6)</sup>를 살펴보면 56종 각 처방의 사용 빈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 제약회사 제제나 예비조제 제제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 종류 개수에 대한 낮은 보장성에 대해 한의사들은 한약제제 급여종류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up>7)</sup>, 현재 급여 대상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처방 대신 실제 활용도가 높은 처방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sup>8)</sup>. 또, 2006년, 보건복지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에서는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한방복합과립제를 급여에 넣으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sup>9)</sup>, 이후에도 한방복합과립제의 급여화를 통해 한약제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각 종 급여 및 비급여 한약제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향후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 변경이나 확대 시에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연구를 하였다.

## II. 본 론

### 1. 조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이며, 한방병원 64개소와 한의원 467개소(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한방의료기관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그 중 한방병원 57개소, 한의원 460개소(총 517개소)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97%의 회수율을 보였다.

#### 2) 조사 내용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56종 보험 급여 혼

합엑스산제와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예비조제 제제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비 한약제제 목록을 조사하였다.

서 각종 한약제제를 61.5개 구비하고 있었다.

2. 조사 결과

1) 한약제제 평균 구비 개수

(1) 전체 한방의료기관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의 평균 개수는 11.3개(20.2%)였다.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5.0개였으며 예비조제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3.4개였다. 한방의료기관 평균 19.7개의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있었다(Table 1).

(2) 한의원

한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의 평균 개수는 8.6개(15.3%)였다.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3.0개였으며 예비조제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2.9개였다. 따라서 총 14.5개의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있었다.

(3) 한방병원

한방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의 평균 개수는 33.5개(59.8%)였다.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21.1개였으며 예비조제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6.9개였다. 따라

Table 1. 한방의료기관 별 한약제제 평균 구비 현황 (단위 : 개)

구분	건강보험 56종 엑스제제 (비율)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예비조제 제제	총계
전체 한방의료기관	11.3 (20.2%)	5.0	3.4	19.7
한의원	8.6 (15.3%)	3.0	2.9	14.5
한방병원	33.5 (59.8%)	21.1	6.9	61.5

2) 건강보험 급여 56종 엑스산제의 구비 현황

(1) 전체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는 ‘오적산’으로 517개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 중 345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66.7%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삼소음’과 ‘소청룡탕’으로 두 처방 60.7%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구미강활탕’으로 53.8%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향사평위산’으로 51.8%의 구비율을 보였다. 위의 상위 5개 급여 엑스산제는 전체 한방의료기관 중 50%이상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전체 한방의료기관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 구비 현황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오적산	66.7%	345	29	시호계지탕	11.2%	58
2	삼소음	60.7%	314	29	조위승기탕	11.2%	58
2	소청룡탕	60.7%	314	31	반하후박탕	11.0%	57
4	구미강활탕	53.8%	278	32	대시호탕	10.3%	53
5	향사평위산	51.8%	268	33	오립산	9.3%	48
6	가미소요산	45.8%	237	33	회춘양격산	9.3%	48
7	반하백출천마탕	45.1%	233	35	궁하탕	8.3%	43
8	갈근탕	43.1%	223	35	대화중음	8.3%	43
9	보중익기탕	42.7%	221	37	대항목단피탕	8.1%	42
10	인삼패독산	37.9%	196	38	삼황사심탕	7.5%	39
10	평위산	37.9%	196	39	시경반하탕	7.4%	38

12	소시호탕	37.3%	193	40	시호소간탕	7.2%	37
13	청상견통탕	34.0%	176	41	대청룡탕	6.0%	31
14	이진탕	33.7%	174	42	청서익기탕	5.8%	30
15	내소산	31.3%	162	43	궁소산	5.6%	29
16	연교패독산	30.8%	159	43	당귀육황탕	5.6%	29
17	형개연교탕	28.2%	146	43	복령보심탕	5.6%	29
18	불환금정기산	28.0%	145	43	인진호탕	5.6%	29
19	반하사십탕	26.1%	135	47	시호청간탕	5.2%	27
20	황련해독탕	24.8%	128	48	보허탕	4.8%	25
21	이중탕	22.1%	114	49	백출탕	3.9%	20
22	삼출건비탕	19.7%	102	50	익위승양탕	3.7%	19
23	갈근해기탕	18.4%	95	50	청위산	3.7%	19
24	도인승기탕	15.7%	81	52	당귀연교음	3.5%	18
24	자음강화탕	15.7%	81	52	삼호작약탕	3.5%	18
26	팔물탕	14.5%	75	54	안대음	3.3%	17
27	행소산	13.3%	69	55	황금작약탕	3.1%	16
28	생맥산	11.6%	60	56	승양보위탕	2.7%	14

## (2) 한의원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56종 급여 혼합 엑스산제는 '오적산'으로 460개 조사대상 한의원 중에 292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63.5%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소청룡탕'으로 57.0%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삼소음'으로 56.3%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구미강활탕'으로 49.3%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향사평위산'으로 47.2%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까지의 급여 혼합 엑스산제는 조사대상 한의원 중 50%이상의 한의원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반면 '승양보위탕'은 단 한 곳의 한의원에서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Table 3).

Table 3. 한의원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 구비 현황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오적산	63.5%	292	29	반하후박탕	5.4%	25
2	소청룡탕	57.0%	262	29	조위승기탕	5.4%	25
3	삼소음	56.3%	259	31	대시호탕	5.2%	24
4	구미강활탕	49.3%	227	32	궁하탕	5.0%	23
5	향사평위산	47.2%	217	32	생맥산	5.0%	23
6	가미소요산	40.0%	184	34	회춘양격산	4.6%	21
7	반하백출천마탕	38.9%	179	35	대화중음	4.1%	19
8	갈근탕	37.4%	172	36	대황목단피탕	3.9%	18
9	보중익기탕	37.0%	170	37	시호소간탕	3.7%	17
10	평위산	33.9%	156	38	대청룡탕	3.5%	16
11	인삼패독산	32.2%	148	39	청서익기탕	3.0%	14
12	소시호탕	30.4%	140	40	오림산	2.8%	13
13	이진탕	27.2%	125	41	시경반하탕	2.6%	12

14	청상견통탕	27.0%	124	42	궁소산	2.2%	10
15	내소산	25.0%	115	43	당귀육황탕	1.5%	7
16	연교패독산	23.9%	110	43	삼황사십탕	1.5%	7
17	형개연교탕	23.0%	106	45	보허탕	1.1%	5
18	불환금정기산	22.0%	101	45	복령보심탕	1.1%	5
19	반하사십탕	19.3%	89	45	인진호탕	1.1%	5
20	황련해독탕	18.0%	83	48	삼호작약탕	0.9%	4
21	이중탕	14.8%	68	48	시호청간탕	0.9%	4
22	삼출건비탕	12.4%	57	48	안태음	0.9%	4
23	갈근해기탕	12.2%	56	48	익위승양탕	0.9%	4
24	도인승기탕	9.8%	45	52	당귀연교음	0.7%	3
25	자음강화탕	9.3%	43	52	백출탕	0.7%	3
26	팔물탕	7.6%	35	52	황금작약탕	0.7%	3
27	시호계지탕	7.4%	34	55	청위산	0.4%	2
28	행소산	7.0%	32	56	승양보위탕	0.0%	0

## (3) 한방병원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는 '삼소음'으로 57개 조사대상 한방병원 중 55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96.5%의 구비

율을 보였다. 2위는 '반하백출천마탕'으로 94.6%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가미소요산'과 '소시호탕', '오적산'으로 세 처방 모두 93%의 구비율을 보였다 (Table 4).

Table 4. 한방병원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 구비 현황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삼소음	96.5%	55	29	오림산	61.4%	35
2	반하백출천마탕	94.7%	54	30	조위승기탕	57.9%	33
3	가미소요산	93.0%	53	31	반하후박탕	56.1%	32
4	소시호탕	93.0%	53	32	삼황사십탕	56.1%	32
5	오적산	93.0%	53	33	대시호탕	50.9%	29
6	소청룡탕	91.2%	52	34	회춘양격산	47.4%	27
7	청상견통탕	91.2%	52	35	시경반하탕	45.6%	26
8	갈근탕	89.5%	51	36	대화중음	42.1%	24
9	구미강활탕	89.5%	51	37	대황목단피탕	42.1%	24
10	보중익기탕	89.5%	51	38	복령보심탕	42.1%	24
11	향사평위산	89.5%	51	39	시호계지탕	42.1%	24
12	연교패독산	86.0%	49	40	인진호탕	42.1%	24
13	이진탕	86.0%	49	41	시호청간탕	40.4%	23
14	인삼패독산	84.2%	48	42	당귀육황탕	38.6%	22
15	내소산	82.5%	47	43	궁하탕	35.1%	20
16	반하사십탕	80.7%	46	44	보허탕	35.1%	20
17	이중탕	80.7%	46	45	시호소간탕	35.1%	20
18	삼출건비탕	78.9%	45	46	궁소산	33.3%	19

19	황련해독탕	78.9%	45	47	백출탕	29.8%	17
20	불환금정기산	77.2%	44	48	청위산	29.8%	17
21	팔물탕	70.2%	40	49	청서익기탕	28.1%	16
22	평위산	70.2%	40	50	당귀연교음	26.3%	15
23	형개연교탕	70.2%	40	51	대청룡탕	26.3%	15
24	갈근해기탕	68.4%	39	52	익위승양탕	26.3%	15
25	자음강화탕	66.7%	38	53	삼호작약탕	24.6%	14
26	생맥산	64.9%	37	54	승양보위탕	24.6%	14
27	행소산	64.9%	37	55	안태음	22.8%	13
28	도인승기탕	63.2%	36	56	황금작약탕	22.8%	13

## 2)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구비 현황

## (1) 전체 한방의료기관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는 '당귀수산'으로 517개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 중 129곳에서 구비하고 있

어 25.0%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곽향정기산'으로 18.8%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오령산'으로 17.0%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방풍통성산'으로 16.2%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맥문동탕'으로 10.4%의 구비율을 보였다(Table 5).

Table 5. 전체 한방의료기관 한약제제 구비 현황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당귀수산	25.0%	129	22	팔미환	4.6%	24
2	곽향정기산	18.8%	97	24	천왕보심단	4.4%	23
3	오령산	17.0%	88	24	태음조위탕	4.4%	23
4	방풍통성산	16.2%	84	24	사물탕	4.4%	23
5	맥문동탕	10.4%	54	27	시호가용골모려탕	4.1%	21
6	육미지황환	9.1%	47	28	양격산화탕	3.9%	20
6	계지복령환	9.1%	47	29	열다한소탕	3.7%	19
8	작약감초탕	8.1%	42	29	안중산	3.7%	19
9	산조인탕	7.9%	41	31	포룡환	3.5%	18
10	오약순기산	7.7%	40	31	감맥대조탕	3.5%	18
11	쌍화탕	7.4%	38	33	삼령백출산	3.1%	16
12	청심연자음	7.2%	37	34	가미온담탕	2.9%	15
13	형방패독산	7.0%	36	35	영계출감탕	2.7%	14
14	갈근탕가천궁신이	6.6%	34	35	십전대보탕	2.7%	14
15	은교산	6.4%	33	35	배농산급탕	2.7%	14
16	가미귀비탕	6.0%	31	38	마자인환	2.5%	13
17	우황청심환	5.8%	30	38	향사육군자탕	2.5%	13
18	소견중탕	5.2%	27	40	백호가인삼탕	2.3%	12
18	용담사간탕	5.2%	27	40	독활지황탕	2.3%	12
18	소경활혈탕	5.2%	27	40	향소산	2.3%	12
21	당귀작약산	4.8%	25	40	십적환	2.3%	12
22	마행감석탕	4.6%	24				

## (2) 한의원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는 '당귀수산'으로 460개 조사대상 한의원 중 97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21.2%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곽향정기산'으로 12.6%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오령산'으로 10.7%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방풍통성산'으로 10.0%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맥문동탕'으로 6.7%의 구비율을 보였다 (Table 6).

Table 6. 한의원 한약제제 구비 현황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당귀수산	21.1%	97	25	당귀작약산	2.2%	10
2	곽향정기산	12.6%	58	25	소경활혈탕	2.2%	10
3	오령산	10.7%	49	25	열다한소탕	2.2%	10
4	방풍통성산	10.0%	46	25	영계출감탕	2.2%	10
5	맥문동탕	6.7%	31	29	마자인환	2.0%	9
6	육미지황환	5.7%	26	29	계지탕	2.0%	9
7	은교산	5.4%	25	29	백호가인삼탕	2.0%	9
8	계지복령환	5.2%	24	32	미황탕	1.7%	8
9	쌍화탕	5.0%	23	32	우황포룡환	1.7%	8
10	우황정심환	4.8%	22	32	형방지황탕	1.7%	8
10	형방패독산	4.8%	22	35	산조인탕	1.5%	7
12	소견중	4.3%	20	35	감맥대조탕	1.5%	7
13	천왕보심단	4.1%	19	35	십전대보탕	1.5%	7
14	갈근탕가천궁신이	3.9%	18	35	팔미환	1.5%	7
14	마행감석탕	3.9%	18	39	독활지황탕	1.3%	6
14	작약감조탕	3.9%	18	39	배농산급탕	1.3%	6
17	태음조위탕	3.7%	17	39	안중산	1.3%	6
18	오약순기산	3.5%	16	39	위령탕	1.3%	6
18	청심연자	3.5%	16	39	조위승청탕	1.3%	6
18	포룡환	3.5%	16	39	천궁계지탕	1.3%	6
21	가미귀비탕	2.8%	13	39	팔물근자탕	1.3%	6
21	사물탕	2.8%	13	39	향소산	1.3%	6
23	양격산화탕	2.4%	11	39	형방사백산	1.3%	6
23	용담사간탕	2.4%	11				

## (3) 한방병원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는 '방풍통성산'과 '오령산'으로 57개 조사대상 한방병원 중 38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66.7%

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곽향정기산'으로 63.2%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당귀수산'으로 56.1%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산조인탕'으로 54.4%의 구비율을 보였다 (Table 7).

Table 7. 한방병원 한약제제 구비 현황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방풍통성산	66.7%	38	25	가미온담탕	19.3%	11
1	오령산	66.7%	38	25	감맥대조탕	19.3%	11
3	곽향정기산	63.2%	36	25	우차신기환	19.3%	11
4	당귀수산	56.1%	32	28	사물탕	17.5%	10
5	산조인탕	54.4%	31	28	심적환	17.5%	10
6	오약순기산	42.1%	24	28	조등산	17.5%	10
6	작약감초탕	42.1%	24	28	향사육군자탕	17.5%	10
8	계지복령환	40.4%	23	32	양격산화탕	15.8%	9
8	맥문동탕	40.4%	23	32	열다한소탕	15.8%	9
10	청심연자음	36.8%	21	34	우황청심환	14.0%	8
11	육미지황환	33.3%	19	34	은교산	14.0%	8
12	가미귀비탕	31.6%	18	36	계지가용골모려탕	12.3%	7
13	소경활혈탕	29.8%	17	36	소건중탕	12.3%	7
13	시호가용골모려탕	29.8%	17	36	십전대보탕	12.3%	7
13	팔미환	29.8%	17	36	자감초탕	12.3%	7
16	반하사심탕	28.1%	16	40	길경탕	10.5%	6
16	용담사간탕	28.1%	16	40	독활지황탕	10.5%	6
18	당귀작약산	26.3%	15	40	마행감석탕	10.5%	6
18	쌍화탕	26.3%	15	40	분심기음	10.5%	6
20	형방패독산	24.6%	14	40	태음조위탕	10.5%	6
21	갈근탕가천궁신이	22.8%	13	40	향소산	10.5%	6
21	안중산	22.8%	13	40	형개연교탕	10.5%	6
21	황련해독탕	22.8%	13	40	형방도적산	10.5%	6
24	삼령백출산	21.1%	12				

## 3) 예비조제 제제 구비 현황

## (1) 전체 한방의료기관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예비조제 제제는 '공진단'으로 517개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 중 67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13.0%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소체환'으로 11.2%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계지복령환'으로 7.2%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영신환'으로 6.4%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팔미환'으로 6.0%의 구비율을 보였다(Table 8).

Table 8. 전체 한방의료기관 한약제제 구비 현황(예비조제 비급여 제제)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공진단	13.0%	67	19	자원	1.7%	9
2	소체환	11.2%	58	20	소합향원	1.5%	8
3	계지복령환	7.2%	37	20	소적건비환	1.5%	8
4	영신환	6.4%	33	20	대합홍환	1.5%	8
5	팔미환	6.0%	31	20	비염환	1.5%	8



6	우황청심환	5.6%	29	24	윤장환	1.4%	7
7	오패산	5.4%	28	24	경옥고	1.4%	7
8	육미지황환	4.6%	24	24	천왕보심단	1.4%	7
9	청심환	3.1%	16	24	온백원	1.4%	7
10	건비환	2.9%	15	28	활락탕	1.2%	6
11	당귀수산	2.5%	13	28	보골환	1.2%	6
11	신기환	2.5%	13	28	자운고	1.2%	6
11	포룡환	2.5%	13	28	곽향정기산	1.2%	6
14	칠제항부환	2.3%	12	28	지출환	1.2%	6
15	교감단	1.9%	10	28	배농산	1.2%	6
15	소풍순기환	1.9%	10	28	당귀작약산	1.2%	6
15	오령산	1.9%	10	28	보화환	1.2%	6
15	연령고본단	1.9%	10				

(2) 한의원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예비조제 제제는 ‘소체환’으로 460개 조사대상 한의원 중 54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11.7%의 구비율을 보였다. 2

위는 ‘공진단’으로 11.3%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계지복령환’으로 7.2%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영신환’으로 6.3%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팔미환’으로 5.4%의 구비율을 보였다(Table 9).

Table 9. 한의원 한약제제 구비 현황 (예비조제 제제)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소체환	11.7%	54	14	자원	2.0%	9
2	공진단	11.3%	52	15	당귀수산	1.7%	8
3	계지복령환	7.2%	33	15	대함홍환	1.7%	8
4	영신환	6.3%	29	15	연령고본단	1.7%	8
5	팔미환	5.4%	25	18	교감단	1.5%	7
6	우황청심환	4.8%	22	18	소풍순기환	1.5%	7
7	육미지황환	4.3%	20	18	오령산	1.5%	7
8	오패산	3.0%	14	18	온백원	1.5%	7
9	건비환	2.6%	12	22	경옥고	1.3%	6
9	신기환	2.6%	12	22	당귀작약산	1.3%	6
9	청심환	2.6%	12	22	보화환	1.3%	6
9	포룡환	2.6%	12	22	천왕보심단	1.3%	6
13	칠제항부환	2.2%	10				

(3) 한방병원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예비조제 제제는 ‘공진단’으로 57개 조사대상 한방병원 중 15곳에서 구비하고 있어 26.3%의 구비율을 보였다.

2위는 ‘오패산’으로 24.6%의 구비율을 보였다. 3위는 ‘우황청심환’으로 12.3%의 구비율을 보였다. 4위는 ‘팔미환’으로 10.5%의 구비율을 보였다. 5위는 ‘당귀수산’으로 8.8%의 구비율을 보였다(Table 10).

Table 10. 한방병원 비급여 한약제제 구비 현황 (예비조제 제외)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순위	한약제제명	비율	빈도
1	공진단	26.3%	15	7	육미지황환	7.0%	4
2	오패산	24.6%	14	7	청심환	7.0%	4
3	우황청심환	12.3%	7	14	건비환	5.3%	3
4	팔미환	10.5%	6	14	교감단	5.3%	3
5	당귀수산	8.8%	5	14	보골환	5.3%	3
5	활락탕	8.8%	5	14	소적건비환	5.3%	3
7	견정산	7.0%	4	14	소풍순기환	5.3%	3
7	계지복령환	7.0%	4	14	오령산	5.3%	3
7	소체환	7.0%	4	14	윤장환	5.3%	3
7	소합향원	7.0%	4	14	자운고	5.3%	3
7	영신환	7.0%	4				

### III. 고 찰

설문 조사에 응한 한방병원 57개, 한의원 460개의 설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한방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의 평균 구비 개수는 11.3개(20.2%)였다.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의 평균 구비 개수는 5.0개였으며 예비 조제 제제의 평균 구비개수는 3.4개였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은 총 19.7개의 한약제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한의원은 14.5개, 한방병원은 61.5개로 한방병원이 한의원보다 47개의 한약제제를 더 구비하고 있었다. 한약제제 종류별로 비교해보면, 한의원은 급여 한약제제 8.6개,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3.0개, 예비 조제 제제 2.9개인 반면에, 한방병원은 급여 한약제제 33.5개,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21.0개, 예비 조제 제제 6.9개로 한방병원은 예비 조제한 제제 보다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를 더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큰 차이는 한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경우 선호하는 한약제제를 예비 조제할 만한 동기부여와 결정이 빠르지만, 한방병원의 경우 다수의 공동 진료 체계이므로, 각 개인 한의사에 의한 예비 조제의 동기부여가 약하고, 오히려 다수의

공용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를 구매하여 투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건강보험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구비율 상위 5개 처방을 비교해보면, 한의원은 오적산(1위), 소청룡탕(2위), 삼소음(3위), 구미강활탕(4위), 향사평위산(5위)이 높은 구비율을 보였고, 한방병원은 삼소음(1위), 반하백출천마탕(2위), 가미소요산(3위), 소시호탕(4위), 오적산(5위) 등이 높은 구비율을 보였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1위로 나타난 오적산과 삼소음은感冒질환과 같은 가장 다빈도 질환에 높은 활용도가 보이는 처방이며, 그 외의 상위 5개 처방인 소청룡탕,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 반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소시호탕에 대해서 분석하면, 이들 처방들도 한방진료를 받는 다빈도 증상인 근육부상, 발목뻐, 관절염/요통, 허리 뻐, 오십견 등의 통증질환과 위장질환, 감기<sup>11)</sup>에 투여되는 처방이므로 다빈도 증상과 처방의 상관관계가 있어 구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의 한방의료기관 급여 한약제제 구비율 순위와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연보<sup>12)</sup> 상의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비교해보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

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만, 형개연교탕의 경우 구비율에서는 17위였으나 투약일수에서는 52위로 나타났고, 황금작약탕의 경우 구비율에서는 55위이나 투약일수에서는 27위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11).

Table 11. 한방의료기관 급여 한약제제 구비율 순위와 투약일수 순위 비교

순위	한약제제명(구비율)	한약제제명(투약일수)
1	오적산	오적산
2	삼소음/소청룡탕	소청룡탕
3		삼소음
4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
5	향사평위산	구미강활탕
6	가미소요산	평위산
7	반하백출천마탕	보중익기탕
8	갈근탕	인삼패독산
9	보중익기탕	갈근탕
10	인삼패독산/평위산	반하백출천마탕
11		가미소요산
12	소시호탕	이진탕
13	청상건통탕	내소산
14	이진탕	황련해독탕
15	내소산	연교패독산
16	연교패독산	소시호탕
17	형개연교탕	청상건통탕
18	불환금정기산	불환금정기산
19	반하사심탕	삼출건비탕
20	황련해독탕	갈근해기탕
21	이중탕	반하사심탕
22	삼출건비탕	자음강화탕
23	갈근해기탕	이중탕
24	도인승기탕/자음강화탕	대화중음
25		팔물탕
26	팔물탕	행소산
27	행소산	황금작약탕
28	생맥산	도인승기탕
29	시호계지탕/조위승기탕	궁하탕
30		시경반하탕
31	반하후박탕	생맥산
32	대시호탕	시호계지탕
33	오림산/회춘양격산	반하후박탕
34		시호소간탕
35	궁하탕/대화중음	대시호탕

36		조위승기탕
37	대황목단피탕	오립산
38	삼황사심탕	삼황사심탕
39	시경반하탕	회춘양격산
40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41	대청룡탕	대황목단피탕
42	청서익기탕	청서익기탕
43	궁소산/당귀육황탕/복령보심탕/인진호탕	대청룡탕
44		복령보심탕
45		당귀육황탕
46		삼호작약탕
47	시호청간탕	보허탕
48	보허탕	익위승양탕
49	백출탕	인진호탕
50	익위승양탕/청위산	청위산
51		궁소산
52	당귀연교음/삼호작약탕	형개연교탕
53		백출탕
54	안태음	당귀연교음
55	황금작약탕	안태음
56	승양보위탕	승양보위탕

\*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연보

비급여 제약회사 생산 한약제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구비율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비교해보면 상위 4개 처방까지 당귀수산, 곽향정기산, 방풍통성산, 오령산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순위 모두에 올라있었고, 한의원 구비율 5위는 맥문동탕, 한방병원 구비율 5위는 산조인탕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높은 빈도로 쓰이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1위를 한 당귀수산에 대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특이점이 있었는데, 한의원의 경우 구비율 1위 당귀수산이 21.1%로 2위 곽향정기산의 12.6%에 비해 1.6배 높으나, 한방병원은 1위부터 5위까지 (1위가 5위 대비 1.2배)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구비 형태와 방법에서 순위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의원은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당귀수산이 구비율 1위를 보여주었으

나 예비조제 제제 당귀수산은 15위였고, 한방병원의 경우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당귀수산 4위이나 예비조제 제제 당귀수산은 5위로 큰 차이 없었다. 당귀수산 한약제제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한의원은 예비조제하기 보다는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당귀수산을 구매해 쓰는 경향을 보였고, 한방병원은 큰 차이 없이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나 혹은 예비조제 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당귀수산의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및 예비조제 제제 구비율 순위 비교

종류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예비조제 제제
한의원	1위(21.1%)	15위(1.7%)
한방병원	4위(56.1%)	5위(12.3%)

예비 조제하는 제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구비율 상위 5개 처방중 공진단과 팔미환은 공통으

로 순위가 높고, 한의원은 소체환(1위), 계지복령환(3위), 영신환(4위)이 높은 구비율을 보인 반면, 한방병원은 오패산(2위), 우황청심환(3위), 당귀수산(5위)이 높은 구비율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와 예비조제 제제 구비율 순위 비교

한약제제명	예비조제 제제 순위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공진단	1위	40위 밖
소체환	2위	40위 밖
계지복령환	3위	6위
영신환	4위	40위 밖
팔미환	5위	22위
우황청심환	6위	17위
오패산	7위	40위 밖
육미지황환	8위	6위
청심환	9위	40위 밖
건비환	10위	40위 밖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보인 처방 중 공진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補益強壯의 효능<sup>13)</sup>을 목표로 폭넓게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팔미환은 腎虛한 증상<sup>14)</sup>을 치료하기 위해 다빈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의원에서 높은 구비율을 보인 소체환은 痞, 滿, 脹, 痛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고, 영신환은 『방약합편』 중의 천금광제환과 입효제중단의 합방으로 寒性의 食傷으로 인한 擘攔과 擘攔을 주치<sup>15)</sup>하는 소화기계 처방이며, 한방병원에서 높은 구비율을 보인 오패산은 위산과다 및 위궤양 등<sup>16)</sup>을 치료하는 한약제제로 한방병원이 한의원에 비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황청심환은 한방병원에서 중풍의 구급약 및 심혈관계, 신경정신과적인 질환<sup>17)</sup>에 한약제제의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비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방의료기관들은 소화기계 질환 등의 다빈도이어서 많이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고가의 한약

제제인 경우는 예비 조제하여 구비를 하고, 소량으로 활용하고 저가인 한약제제는 제약회사 제제를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 급여를 변경하거나 확대 실시 할 시, 급여 대상으로 적합할 처방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한방의료기관에서 높은 빈도로 구비되어있는 한약제제와 각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 조제하여 구비하고 있는 한약제제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순위대로 나열하면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로는 당귀수산, 곽향정기산, 오령산, 방풍통성산, 맥문동탕, 육미지황탕, 계지복령환, 작약감초탕, 산조인탕, 오약순기산, 쌍화탕, 청심연자음, 형방패독산, 갈근탕가천궁신이, 은교산, 가미귀비탕, 우황청심원 등이 해당되고, 예비조제 제제로는 공진단, 소체환, 계지복령환, 영신환, 팔미환, 우황청심원, 오패산, 육미지황환 등이 있다. 이들 한약제제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급여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험의 성격상 보약과 같은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치료에 중점을 둔 한약제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 조제하는 한약제제인 공진단은 주로 補益強壯의 용도로 쓰이고 비싼 약가로 인해 보험 급여 대상 처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에 고시된 건강보험 급여 56종 한약제제가 건강보험통계에서나 본 조사에서와 같이 심하게 왜곡되어 투여되는 상황에서, 본 조사에 나타난 여러 결과들이 한방건강보험의 의약품 급여의 정상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V. 결 론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 56종 혼합 엑스산제,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예비조제 제제의 구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한방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험 급여 엑스산제 11.3개(20.2%),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5.0개, 예비조제 제제 3.4개 등, 총 19.7개의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있었다.
2. 한방의료기관에서 급여 56종 혼합 엑스산제 구비율 순위는 1위 오적산, 2위 삼소음, 3위 소청룡탕, 4위 구미강활탕, 5위 향사평위산 이었다.
3. 한방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제약회사 제제 구비율 순위는 1위 당귀수산, 2위 곽향정기산, 3위 오령산, 4위 방풍통성산, 5위 맥문동탕 이었다.
4.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 조제한 한약제제 구비율 순위는 1위 공진단, 2위 소채환, 3위 계지복령환, 4위 영신환, 5위 팔미환 이었다.
5. 향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변경이나 확대 시, 급여 대상 한약제제로는 당귀수산, 곽향정기산, 오령산, 방풍통성산, 맥문동탕, 소채환, 계지복령환, 영신환, 팔미환 등을 제시한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2006:298-9.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294-5.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290-1.
9. 손지형, 김용호, 임사비나. 한의사의 복합과립제 사용 실태 조사 및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급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64-78.
10. 박혜정, 오문수, 김은정, 이상규, 박성규, 김윤경. 한약제제 보험급여 주상병과 처방분석. 대한본초학회지. 2006;21(4):1-10.
11. 보건복지부. '한방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합동 T/F 회의'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 2006년 3월 23일.
12. 메디포뉴스.. 서울:메디포뉴스 2008년 10월 6일.
1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년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145.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290-1.
15. 강석봉. 팔미지황환이 Methotrexate로 유발된 SD Rat의 면역기능저하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8;29(3):21-37.
16. 황도연. 증맥 방약합편. 서울:남산당. 2002:150-2.
17. 이시섭, 자현욱, 고병문, 이광규, 이창현. 오패산이 흰쥐 위의 Gastrin, Histamin, Somatostatin 면역반응세포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5):788-93.
18. 황재웅외 13명. 우황청심환의 단독투여 및 연속투여에 따른 정상인의 뇌혈관반응도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30(1):95-108.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G08090)에 의해 수행된 논문입니다.

## 참고문헌

1. 서부일, 김선희. 한방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1995;20(3):3-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건강보험통계연보. 2004:286-7.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286-7.